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프로코피오스 대순교자

마태오 제6주일

성 프로코피오스 대순교자

제5조, 조과복음 6

성 요한 크리소스토م 성찬예배에서

- 제5조 부활 찬양송 / 82, A 215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성인 찬양송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A 226
- 사도경 : 로마 12, 6-14 / 봉독서 162
- 복음경 : 마태오 9, 1-8 / 111, B 40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성 프로코피오스 대순교자

우리 교회에서는 7월 8일을 성 프로코피오스 대순교자(†303년)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아름다운 영적 모범이신 성인은 영적 근면함으로 성서 공부에 전념 하였습니다. “이 책에 있는 법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되새기며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어김없이 성심껏 실천하여야 한다.”(여호수아 1:8)라는 구약의 말씀을 읽고 삶 속에 적용한 것입니다. 성서에 계시된

성령의 신성한 진리의 달콤함을 맛보면서 어떤 다른 책들보다 성서가 가장 훌륭한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이 직무에 전념하고 정성을 다하시오. 그리해서 그대가 발전하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게 하시오.”(디모테오 4:15)라는 성 바울로의 권면대로 자신의 영적 성장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조과에서 봉독하는 복음



정교회는 매 주일에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경축합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 저녁 대만과에서는 죽음의 승리자이신 주님에 대한 찬양송이, 주일 조과에서는 여덟 가지로 만들어진 비잔틴 성가의 부활 찬양송이 그날의 음조에 따라 번갈아 불립니다.

또한 주일 조과에서는 부활 사건과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사실들을 기록한 내용의 복음을 봉독합니다. 이 복음을 ‘조과 부활복음’ (Εωθινόν 에오티논)이라고 하는데, ‘아주 이른 아침’, ‘막 동이 트기 시작한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이른 아침에 봉독되고 성찬예배의 복음과는 구별된다는 뜻과 함께 이른 아침에 일어난 부활의 기적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오복음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부활의 사실은 “안식일이 지나고 그 이튿날 동틀 무렵에”(28,1) 주님의 무덤에 향료를 가지고 간 여인들에 의해서 알려졌습니다. 루가복음에서도 부활 기적은 “안식일 다음 날 아직 동이 채 트기도 전에”(24,1)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간 여인들에게 천사가 알려 주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조과 부활복음은 또 다른 면에서 주님의 부활을 회상시켜줍니다. 사제는 조과 부활복음을 성찬예배 때처럼 성소 중앙의 아름다운 문이나 봉독대에서 봉독하지 않고 성소 안의 제단 우측에서 봉독합니다. 이는 마르코 복음에 기록되었듯이 주님의 빈 무덤

“오른편에 앉아 있던”(16,5) 천사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조과 복음은 부활하신 주님을 충분히 나타내기 위해 모든 복음에서 인용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마태오복음에서는 제1 복음을, 마르코 복음에서는 제2, 제3 복음을, 루가복음에서는 제4, 제5, 제6 복음을,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제7 복음부터 제11 복음까지 인용되어 모두 11개의 조과 부활복음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1개의 조과 부활복음은 부활을 증거한 첫 순교자들인 열 한 제자의 숫자(주님을 배반한 유다는 제외)를 의미합니다.

부활 봉독 다음에는 “주님의 부활을 본 후에 기록하신 주 예수를 경배하오니...”로 시작되는 기도문을 외우는 것은 복음을 들음으로써 부활의 기적이 생생하게 살아나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사제는 복음경을 받들고 성소에서 나와 신자들에게 복음경에 새겨진 부활 성상에 경배케 합니다. 복음경에는 주님의 말씀과 행적이 담겨 있으므로 주님과 같이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주일 조과에 참례하는 신자들은 부활복음 봉독으로 부활의 감동 속에서 사는 기쁨을 얻으며, 전능하신 주님으로부터 영적 능력을 받고 어렵고 고된 삶을 새롭게 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자격과 권리

이 새로운 천 년의 시대에 우리들 각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로서도 가장 큰 손해를 끼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른바 ‘자격 또는 권리’에 대한 감각과 의식일 것이라고 믿는다.

스스로 자격이 있다거나 권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곧, 노동이 없는 부, 양심이 없는 쾌락, 인격과 품성이 없는 지식, 쇠퇴하거나 소멸하지 않는 상업, 겸양을 잃은 과학, 희생이 없는 예배, 원칙이 없는 정치와 정책들 등등.

가난한 이들에게 자선을 베풀거나 사회에 환원하는 행위 없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자신의 식탁 위에 주어지길 기대하면서 결국은 재앙을 조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래된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공짜 점심은 없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노동을 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이 말은 우리 신앙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마십시오”(데살로니카 2 3,10)

▶ 아타나시아



소 식

대교구

■여름 수련회 ▷ 올해도 초등부(7월 30일~8월 4일), 중·고등부(8월 4일~6일) 여름 수련회(English Camp), 신데즈모스(7월 27일~29일) 수련회가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사회복지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유익하고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아이들의 영적 신앙생활에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거룩한 사업인 수련회에 부모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성당 사무실로 신청해주시요.
참가비는 초등부-15만 원, 중·고등부-5만 원, 신데즈모스-5만 원입니다.

부산 성모 희보 성당

■여름 수련회 ▷ 올해는 '좋은 말과 행동'이라는 주제로 초등 1부(7월 27일~29일), 초등 2부, 중·고등부(7월 30일~8월 1일), 신데즈모스(8월 20일~22일) 여름 수련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재밌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영적 생활에 큰 성장을 가져올 수련회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인천 성 바울로 성당

■세례를 축하합니다 ▷ 지난 7월 1일 주일 성찬예배와 함께 유아세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세례와 견진성사를 받고 정교인이 된 유아는 마스키나다리아의 둘째 아들 박래오(레온디오스)입니다. 성 삼위 이름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태어난 레온디오스가 영적 육적으로 풍성한 주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성장하기를 우리 모두는 기원합니다. 가족 분들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